# 문화

9월 28일 경찰의 부검 강제 집행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영안실 앞 주차장 입구에서 고인의 시신을 지키고 있다

# 망자의 빈소 곁은 생의 가장 짙은 내음으로 가득하다

**故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지난 달 25일 끝내 숨졌다. 이후 발포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인이 확실해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입장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선 유가족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기사는 지난 달 27일 밤부터 29일 아침까지 장례식장을 지키는 데 동참했던 우리학교 학생 약 스무 명을 밀착 취재하여 그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9월 27일 오후 여섯 시.** 종욱은 수업을 마치고 청운관을 나서다가 사람들 손에 하나씩 들린 하얀 종이꽃을 보았다. 청운관 앞 마당에 좌판을 편 플리마켓에서 디퓨저를 파는 학생들이 행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시향 종이꽃이었다.

"향기 맡아보고 가세요."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 사람들을 보며, 종욱은 이틀 전 맡았던 옅은 국화꽃 향기가 떠올랐다. 문득 한기를 느낀 종욱은 카디건을 여민다. 수업을 같이 들은 수민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너 잠이 부족해서 추운가보다. 오늘은 집회 가지마."

아니야. 이제 바람이 정말 찬데 뭘. 잠은 무슨. 종욱은 대수롭잖게 대답하며 핸드폰을 켠다. 검경이 부검영장을 보완하여 제출했다는 속보가 떠있었다. 급박한 손길로 들어간 '백남기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오후 4시 이후 정도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으로 모여 달라는 호소가 올라와 있다. 내일은 전공 퀴즈 날인데. 종욱은 잠시 멍하니 도서관을 바라보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40분 여 버스를 탄 끝에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종욱은 민규에게 전화를 건다.

"선배 어디에요?"

"오전에 비가 와서 분향실을 열어줬어. 우리 다 거기 있어. 영장 발부 소식은 아직 없다."

분향실로 향하는 길, 오가는 사람마다 가슴에 노란 세월호 리본을 매달고 지나친다. 그 리본을 보니 가을 볕 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밀이 떠오른다. 백남기 농민은 정부가 수매를 멈춘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해 밀밭을 가꿔왔다. 작년 11월 어느 언론사 기사에서 본 보성의 밀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오후 일곱 시.** 가장 안쪽의 14호 분향실에 아는 얼굴들이 모여 있다. 종욱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뉴데일리에 올라온 성신여대 학생 칼럼 읽어봤어?"

종욱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바로 알아듣는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학생이 9월 26일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은 "전태일과 미선이·효순이,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시체팔이'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종욱은 기사를 읽으며 어려운 영어로 점철된 토익 지문을 읽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체팔이." 그들의 이름 뒤에 왜 자리하고 있는지 모를 그 단어를 혀를 굴려 발음해 보는 종욱의 표정이 황망하다.

시간이 흐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윽고 부검영장에 관한 주제로 옮겨 갔다. 법원이 오늘 중에는 부검영장을 발부한다지만, 이것이 언제 발부될 지는 기약 없이 요원했다.

**오후 아홉 시.**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던 종욱의 떨군 고개 사이로 민규의 닳은 운동화가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뭐 그런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아냐. 산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거."

그 운동화는 민규가 작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 총궐기대회에 신고 나갔던 것이라 했다. 이 날 민규는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갔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노동개혁 반대한다!" 마커로 눌러쓴 플래카드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구겨졌다. 물대포에 섞인 최루액이 아스팔트 위 하얀 물보라로 일었다. 그 사이로 선배 하나가 쿵 쓰러졌다. 형! 급히 달려가 그의 뒷목을 잡아 일으키는 민규의 손에 끈적한 피가 묻어 나왔다. 서둘러 그를 구급차 쪽으로 옮겨 구급차 안에 들여놓는 순간, 예기치 않은 세찬 물줄기가 퍼부어졌다.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은 구급차 안쪽까지 닿고 있었다. 급히 차문을 닫으며 출발하라고 소리치는 구급대원, 경찰을 향해 분노하는 시민들, 그런 그들을 민규는 귀에 물이 찬 채 음소거된 장면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민규는 그 날의 적막이 소름이 끼쳐 한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 몰랐던 이 날 하루 사이에, 민규의 새 운동화는 오래 묵은 신발처럼 찢기고 닳아버렸다고 했다.

**새벽 두 시.** 고개를 한참 떨구고 있는 종욱을 향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준이었다.

"결국 영장발부 될 것 같기는 하다는데 오늘 밤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들어가서 자자."

그래야겠지. 종욱은 지하로 내려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공 책을 억지로 들여다보며 퀴즈를 준비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 곁에서, 종욱은 일상을 꾸역꾸역 붙잡는다.

## 떠난 자의 빈자리에 남은 자들이 모여들다

시간이 지나 **9월 28일 오후 일곱 시.** 어제 밤을 꼬박 분향소에서 보낸 종욱은 학교에 가 잠시 수업을 듣고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장례식장 앞에는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 본부'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와 7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있었다.

종욱은 맨 뒷줄에 엄지손가락만한 촛불을 들고 서서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경찰의 부검 강제집행으로부터 백남기 농민을 지키자"는 결의를 같이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주위를 에워 싼 언론사 카메라와 기자들을 보며 '법원이 곧 결정을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종욱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았다. 틈 날 때 마다 핸드폰으로 '백남기 부검'을 검색해서 기사를 확인하다 보니 배터리가 벌써 다 닳았다. 장례식장에 가득 들어 찬 사람들로 인해 콘센트를 찾지 못한 종욱은 옆 건물인 암병원으로 나섰다. 핸드폰을 간신히 켜서 '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하니, 거기엔 'JTBC 뉴스에서 영장발부가 됐다는 정보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종욱은 오후 여덟 시 삼십 삼 분에 올라온 이 글을 보고 서둘러 짐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 앞에서는 백 씨의 유가족이 부검영장이 발부된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유가족의 감정이 뒤섞인 그 표정이 취재진의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떤 민망함을 느낀 종욱은 안치실 입구 쪽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는 선득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 긴장감은 장장 서너 시간 동안 팽팽하게 이어졌다.

**새벽 두 시.**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이 멎어들 무렵, 추운 공기를 못 견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흐르던 아스팔트 주차장 바닥에 달라붙어 애써 잠을 청하던 종욱은, 문득 백남기 농민의 얼굴이 그리웠다. 가방에서 검은 양말을 꺼내 갈아 신고 찾아간 그 곳, 사람들 부대끼는 냄새로 가득한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만이 향긋한 꽃향기가 났다.

흰 국화의 향기. 종욱은 그동안 쉼 없이 움직였던 다리를 이곳에서 멈추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저 영정사진 앞에서 슬퍼하고 그리는 마음만을 생각했다. 어제만 해도 빈 공간이 많던 추모의 벽은 지금 노란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은, 그대와 살고 싶었던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취재를 마치고

이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떠나간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추모의 자리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언론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 곳에서는 무리지어 단체 활동을 하는 정당 관계자들도 있었고, 사람이 많이 모인 이 자리를 빌려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을 공연하려는 여러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농민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군사정권시절부터 유명했던 노동운동가라는 사실에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워 바라보기도 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저마다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의 대립이 한 생명에 대한 순수한 추모를 압도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문제였다. 국가가 지니는 힘인 공권력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향하게 될 때, 그 힘은 어떤 태도와 맥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또, 그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경우 공권력의 사용자인 국가와 그 책임자는 어떤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하는가. 적어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여러 날 밤을 함께 지새우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은 서울대학교 병원 바깥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당장에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청운관 1층 총학생회존 앞에는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꾸려졌다. 벽면에 붙은 대자보에는 '국가폭력', '공권력', '국민의 생존권'과 같은 단어들이 여기 저기 적혀있다. 이 분향소를 둘러싸고도, 마치 서울대병원 그 현장에서처럼, 이를 바라보는 구성원의 다양한 시선과 언론의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은, 2016년 10월 지금의 시대상이 가득 담긴 날카로운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 9월 28일 대학생들이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반대하고 있다(사진 위).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에 설치된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